

샤르댕의 아동 교육 장르화*

- 18세기 프랑스 부르주아의 계몽주의적 아동관

Chardin's Genre Paintings of Child Education: The Enlightenment Views on Children of the French Bourgeois Class in the 18th Century

고유경(홍익대학교 석사)

- I. 서론
- II. 18세기 프랑스 화단의 새로운 바람
- III. 샤르댕의 아동 교육 장르화 분석
 - 1. <가정교사>: 어린이다움과 예절 교육
 - 2. <근면한 어머니>: 근면하고 정숙한 전통적 소녀 교육
 - 3. <식사기도>: 신앙과 미덕의 교육 장소인 가정
 - 4. <아침단장>: 아이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다움
- IV. 18세기 전반 프랑스 부르주아의 가정적 이상과 아동교육관
 - 1. 부르주아의 가정적 이상
 - 2. 계몽주의적 아동관의 발달과 양육 태도의 변화
- V. 결론

I. 서론

샤르댕(Jean-Baptiste-Siméon Chardin, 1699-1779)은 평생을 파리에서 활동한 18세기 프랑스 화가이다. 그는 1728년 두 점의 정물화를 입회작으로 왕립 미술 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의 회원이 되었고, 오늘날도 정물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¹⁾ 하지만 아카데미 입회 후인 1730-50년대에 샤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18세기 프랑스 부르주아의 가정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아동관 - 샤르댕의 아동 교육 장르화 연구」에서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샤르댕은 1728년 9월 25일에 두 점의 정물화 <가오리>와 <연회>를 입회작으로 '동물과 과일을 그리는 화가'로서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다. 그의 생애는 마리에트(Pierre-Jean Mariette)와 코칭(Charles Nicolas Cochin the Younger)이 쓴 전기로 기록되었다. 마리에트의 글은 Pierre Rosenberg and Renaud Temperini, *Chardin* (New York: Prestel, 1999), pp.168-169,

르댕은 장르화를 집중적으로 제작하였다.²⁾ 그의 장르화는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장식적이고 귀족적인 그림과 다르게 부르주아 가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여, 주제와 형식이 매우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고 소박한 그림으로 당대에 평가받았다.³⁾ 특히,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그린 장르화에 나타나는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아이를 그려낸 시각은 18세기 전반 프랑스 화단에서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⁴⁾ 부르주아 가정에서의 아이 교육 장면을 보여주는 이 장르화들은 살롱 전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후 판화로 제작, 판매됨으로서 샤르댕에게 대중적 명성과 경제적 성공을 안겨주었다. 이로써, 샤르댕은 1740년을 전후해 아동 교육 주제의 장르화를 통해 화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이제까지 샤르댕의 장르화에 대한 변별적 해석은 거의 행해지지 않아, 작품에 대한 연구는 대개 형식주의나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 전통

코칭의 글은 Marianne Roland-Michel, *Chardin* (New York: Harry N. Abrams, 1996), pp.267-270에 영문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 2) 샤르댕의 장르화 선택에 대해 로젠버그는 재정적 이유와 예술적 이유를 제시하였다. 당시 장르화는 판화로 제작, 판매되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인간을 그린 장르화가 정물화보다 높은 수준의 미술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샤르댕이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장르화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Pierre Rosenberg ed., *Chardin*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00), pp.186-187.
- 3) 당대에 『살롱』지와 『메르퀴르 드 프랑스』 등에 실린 글에서 샤르댕의 그림은 ‘실체와 같은(his figures are strikingly true to life)’, ‘더욱 자연스러운(more natural)’, ‘꾸밈없는 있는 그대로(artless truthfulness)’ 등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스타일은 ‘독자적인(singular)’, ‘독특한(unique)’, ‘독창적(original)’인 양식(style)과 재능(talent)으로 평가되었다. Pierre Rosenberg and Renaud Temperini, pp.168-170; Marianne Roland-Michel, pp.264-267.
- 4) 샤르댕의 아이그림에 대한 당대의 주목과 평가는 Dorothy Johnson, “Picturing Pedagogy: Education and the Child in the Paintings of Chardin,” *Eighteenth-century studies* 24, 1990, pp.47-68.
- 5) <가정교사>는 살롱이 열렸던 헤 겨울 벤젤 왕자(Josef Wenzel, Prince of Liechtenstein, 1696-1772)에게 1800 리브르라는 높은 가격으로 팔렸다. <식사기도>의 다른 버전은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에 의해 구입되었으며, 테생 백작(Carl Gustaf Tessin, 1695-1770)이 소유했던 <아침단장>은 곧 스웨덴의 울리케 여왕(Luise Ulrike, 1720-1782)에게 팔렸다. 울리케 여왕은 이후 다시 샤르댕에게 교육과 좋은 주부의 모습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장르화를 주문하였다. 샤르댕은 살롱전에서 장르화의 성공으로 정물화가로서는 언기 힘든 관심과 최고 수준의 미술 주문을 획득했으며, 외국의 왕실 컬렉션에 작품이 소장되었고, 자신의 정물화에도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의 맥락에서만 이루어졌다.⁶⁾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샤르댕이 1739-41년에 제작한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르화 4점 <가정교사(*The Governess*)>, <근면한 어머니(*The Diligent Mother*)>, <식사기도(*Saying Grace*)>, <아침단장(*The Morning Toilet*)>(도 1, 2, 3, 4)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제까지 잘 연구되지 않았던 샤르댕 장르화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혀 보려 한다.⁷⁾ 먼저, 샤르댕의 장르화가 제작되었던 18세기 전반(前半) 프랑스 화단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각 그림들을 분석해 보았다. 각 그림에 표현된 모티프의 도상적 기원을 찾아, 기존의 장르화 전통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이것을 18세기 프랑스의 구체적인 가치관과 생활상 속에서 이해해 봄으로써 그림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다.

6) 샤르댕에 관한 주요 단행본 저자로 Wildenstein(1933 초판, 1963 개정판, 1969 영역판)과 Rosenberg(1979, 1983, 1999, 2000), Conisbee(1986), René Démoris(1991, 불어), Roland-Michel(1994, 1996 영역판)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세 방향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샤르댕 그림의 형식적 탁월함과 독특함에 집중한 형식주의적 관점과 미술 전통,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그림을 이해하려는 기존의 미술사 방법론, 그리고 신미술사적 방법론을 통한 연구이다. 그러나 형식주의 관점에서는 주제의 독특함이나, 그림의 의미가 설명되지 않으며, 신미술사 방법론의 연구 역시 제한된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그림의 의미가 잘 해석되지 않는다. 기존의 미술사 방법론에서 주목할 연구는 Philip Conisbee, *Chardin*,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86); Ella Snoep-Reitsma, "Chardin and the Bourgeois Ideals of his Time,"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4, 1973, pp.147-243 등이 있다. 하지만, Snoep-Reitsma는 샤르댕의 그림에 네덜란드 장르화와 엠블렘 전통, 판화에 붙은 문구를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실제 그림과는 잘 맞지 않는 지나치게 경고적인 의미로 그림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Conisbee 역시 네덜란드 장르화 전통을 따라 그림에 어색한 해석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해석이 그림과 맞지 않을 때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18세기 프랑스에 대한 사회, 문화적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문화사와 사회사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샤르댕 그림의 새로운 특성들을 당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이해해 보았다.

7) <가정교사>는 살롱 전시 후 대중적으로 매우 큰 호응을 얻었고, <근면한 어머니>와 <식사기도>는 루이 15세에게 헌정되어 왕실 컬렉션에 포함되었다. 또, <아침 단장>은 테생 백작의 주문으로 그려 전시되었다. 샤르댕의 전기를 쓴 마리에트는 장르화로 샤르댕에게 진정한 명성을 안겨 준 그림은 1739년의 <가정교사>라고 전해준다. Philip Conisbee, p.162. 이와 같은 대중적 성공은 다음해에 그가 자신의 작품을 왕에게 직접 바치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된다.



도 1. 장-밥티스트-시메옹 샤르댕, <가정교사>, 캔버스에 유채, 46.7×37.5cm, 1739년, 오타와, 캐나다 국립 미술관



도 2. 장-밥티스트-시메옹 샤르댕, <근면한 어머니>, 캔버스에 유채, 49×39cm, 1740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II. 18세기 프랑스 화단의 새로운 바람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 후 프랑스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17세기 절대 왕정기의 권위와 기준의 해체를 맞보았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 이래 잠재하고 있던 이성에 의한 비판정신과 자유주의 사상들이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⁸⁾ 미술계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신구(新舊)논쟁’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고대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당대의 가치들이 우월함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⁹⁾ 로제드 필(Roger de Piles, 1635-1709)을 중심으로 일어난 아카데미의 ‘신구 논쟁’은 미술이론에 있어 소묘에 대해 색채가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던 심미적 판단의 독점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또한 경험에 근거한 감각적 예술 판단이 힘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미술에서 데생이나 아카데미의 이론이 아닌 교양 있는 사람들의 감상적 판단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8)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 역, 『프랑스사』, 기린원, 1995, pp.244-251.

9) 위의 책, pp.263-266; 아놀드 하우저, 『문화와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 비평사, 1999. pp.17-18.



도 3. 장-바티스트-시메옹 샤르댕, <식사기도>, 캔버스에 유채, 50×38.5cm, 1740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도 4. 장-바티스트-시메옹 샤르댕, <아침단장>, 캔버스에 유채, 49×39cm, 1741년, 스톡홀름, 스톡홀름 국립박물관

고, 화가의 고유한 기량과 개성에 새로운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⁰⁾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더해, 18세기 초 파리에서는 살롱전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이 미술을 접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근대적인 미술 비평이 시작되었다.¹¹⁾ 이러한 변화는 아카데미의 미술체계에서 낮은 위계에 속했지만 큰 인기를 누린 18세기 ‘장르화’의 유행과 같은 당대의 미술 취향의 발달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또한 새로운 미술 후원자로 부상한 부르주아 계층 역시 이러한 미술계의 변화와 새로운 취향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¹²⁾ 샤르댕은 바로 이 시기에 장르화를 제작, 전시함으로써 화가로서의 입지를 넓혀갔다. 따라서 그의 장르화에 대한 전념과 그로 인한 성공은 이러한 당대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프랑스 장르화의 발달은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의

10) Rolf Toman ed., *Baroque and Rococo*. Berlin: Feierabend, 2003, pp.144-145.

11) Thomas Crow, *Painters and Public Life in Eighteenth-Century Par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pp.5-18.

12) 18세기 초 부르주아 출신의 유명한 미술 애호가 및 수집가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크로자(Pierre Crozat, 1665-1740)와 장 드 줄리엔느(Jean de Jullienne, 1686-1766) 등이 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르주아 엘리트들도 장르화를 주문하고 사들였다. 위의 글, pp.39-40.

인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그림들은 미술계의 신흥세력에 의해 비싼 가격에 수집되었고, 네덜란드 그림을 모방한 그림들이 파리의 미술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다.¹³⁾ 18세기 프랑스 장르화는 소재나 구성에서 이러한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의 상징 의미들이 많이 밝혀져 그림의 의미가 풍성히 해석되고 있는 것과 달리 18세기 프랑스 장르화는 그렇지 못하다. 18세기 장르화에는 네덜란드 그림 같은 알레고리적인 모티프가 잘 등장하지 않고, 분위기 역시 매우 일상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17세기 전통에 기댄 18세기 장르화의 연구는 종종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해석에 이르게 된다. 이는 샤르댕의 장르화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이런 해석의 어려움에 대해, 프랑스 장르화의 위상에 대해 연구한 스콧은 18세기 장르화가 도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 전달을 목적으로 한 그림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이야기적 기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그림에 표현된 것들은 알레고리라기보다 현실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예시라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견해는 전통적 상징의 재현과 일상의 담담한 포착 사이에 놓인 듯한 샤르댕 장르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좋은 기반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각 작품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Ⅲ. 샤르댕의 아동 교육 장르화 분석

1. <가정교사>: 어린이다움과 예절 교육

1739년 살롱에 전시된 <가정교사>(도 1)는 샤르댕이 그린 최초 교육 주제 작품이다. 의자에 앉아 있는 선생과, 그 앞에 서서 가르침을 받고 있

-
- 13) Thomas W. Gaehtgens, “Genre Painting in Eighteenth-Century Collections.” and Colin B. Baily, “Surveying Genre in Eighteenth-Century French Painting,” in *The Age of Watteau, Chardin, and Fragonard: Masterpieces of French Genre Painting*(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80-82, pp.4-5; Ella Snoep-Reitsma, 앞의 글, pp.148-149.
- 14) Katie Scott, “Child's Play,” *The Age of Watteau, Chardin, and Fragonard: Masterpieces of French Genre Painting*(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90-97.



도 5. 얀 스테인, <학교선생님>, 캔버스에 유채, 109×81cm, 1663-65년, 더블린, 아일랜드 국립 미술관

는 아이의 모습은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도 5)나 아브라함 보스(Abraham Bosse, 1604-1676)의 판화(도 6)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회초리와 책을 들고 있는 선생을 묘사한 이들 장면은 중세의 ‘문법’ 도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글쓰기 등의 기초 학습과 훈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¹⁵⁾

기본적인 구성은 17세기 그림과 비슷하지만, <가정교사>에는 이러한 도상 전통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우선 가르침의 매개가 되는 모티프가 ‘회초리와 책’에서 ‘모자와 술’로 대체되었고, 아이를 교육하는 여인의 태도 역시 위엄 있지만 한결 부드럽다. 순종적인 모습의 아이는 5세 이상의 남자 아이에게 성인의 복장을 권하던 당시의 관례에 따라 전형적인 신사의 차림을 하고 있다.¹⁶⁾ 특히 여인의 손에 들린 모자는 ‘트리콘(tricorn)’인데, 이것은

귀족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양 있는 신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호였다.¹⁷⁾ 더욱이 책을 든 아이는 화면 뒤쪽의 열린 문을 통해 학교라는 공적인 장소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교양 있는 신사의 예의범절에 대한 소년의 교육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에 대한 당대의 기사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여인의 상냥함과 부드러움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¹⁸⁾ 등받이가 큰 의자에 앉은 여인은 풍성한 의상으로 인해 풍채가 크게 느껴져 권위를 갖추었으면서도,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는 자세와 시선에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다. 아이 역시 예의범절에 충실한 의상을 입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자세나 표정에서 어린이다운 정서가 드러난다. 때문에 이 시기의 영향력 있는 계몽주의 교육서 저자인 로크(John Locke, 1632-1704)와 페넬롱(François Fénelon, 1651-1715)이 제

15) Wayne Franits, “Review: The Child in Seventeenth-Century Dutch Painting by Mary Frances Durantini,” *The Art Bulletin* 67, 1985, p.699; Ella Snoep-Reitsma, 앞의 글, p.192.

16) Madeleine Delpierre, *Dress in France in the Eighteenth Centur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p.23-24, 29-30.

17) 위의 글, p.39; 모자는 남성의 공적인 의복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부분이였다. 18세기 『백과전서』에는 ‘코킹된 모자는 좋은 가문과 지적 수준의 표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임스 레버, 정인희 역, 『서양 패션의 역사』, 시공사, 2005, p.137.

18) 이 그림에 대한 18세기의 기사는 Pierre Rosenberg, 앞의 책, p.242.

시한 새로운 교육관은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당시 매우 큰 인기를 끌었던 페넬롱의 『소녀 교육론(De l'education des Filles)』(1687)과 로크의 『아동 교육론(De l'education des enfants)』(1695년 불어판)은 18세기 교육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헌이다.¹⁹⁾ 17세기까지는 체벌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45-403)의 견해에 따라 교육의 엄격함이 강조되었다면, 18세기에는 엄격한 훈련과 질책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법과 훈련을 강조하였다.²⁰⁾

또한 계몽주의적 교육관에서는 아이들의 놀이를 긍정적으로 보아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것을 주장하였다.²¹⁾ 이것은 기존의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놀이도구들이 엄한 교육과 대비를 이루는,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일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이다.²²⁾ 네덜란드 그림에서 놀이 도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과 달리 <가정교사>의 놀이 도구들은 아이 쪽으로만 모여져 있다.(도 1, 5) 더욱이 라캬트와 셔틀콕은 당대에 페넬롱이 아이들의 놀이로 권장했던 것이다.²³⁾



도 6. 아브라함 보스, <교사>, 판화, 26.3×32.9cm, 1638년, 파리, 국립 도서관

19) 로크의 책은 18세기 중반에 이미 12번 재판되었으며, 1720-30년간 쏟아져 나온 많은 교육적 논문들이 기본적으로 이들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었다. 로크의 책은 18세기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로 번역되었다. Dorothy Johnson, 앞의 글, pp.48-49; Colin Heywood, *A History of Childhood: Children and Childhood in the West from Medieval to Modern Times*(Cambridge: Polity Press, 2001), p.23.

20) 존 로크, 임채식·강진영 역, 『존 로크의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 서원, 1993, pp.47-49, 50-59, 79-89, 176-177.

21) François Fénelon, *Instructions for The Education of a Daughter*(trans George Hickes, Bristol: Thoemmes Press, 1994), pp.55-57; 존 로크, 앞의 책, pp.114, 141, 162-166.

22) 네덜란드 장르화에 등장하는 놀이도구의 부정적 상징의미에 대해서는 Wayne Franits, 앞의 글, p.696. Ella Snoep-Reitsma는 샤르댕의 장르화에 대한 논문에서 페넬롱의 교육론을 언급하지만, 논의를 진행시키지는 않았으며, 샤르댕 그림의 놀이도구들을 부정적인 상징으로 보았다. Ella Snoep-Reitsma, 앞의 글, p.188. Conisbee 역시 이것들을 바니타스적 상징으로 해석하였다. Philip Conisbee, 앞의 책, pp.140-141.



도 7. 헤라르트 터르 보르흐, <실짓는 여인>, 패널에 유채, 34.5×29.5cm, 17세기 중반, 로테르담, 보이만스 판 비닝언 미술관

여인의 발치에 놓인 바느질함이 여인을 여인답게 보여주는 모티프이듯이 아이의 발 뒤에 있는 놀이 도구는 어린 이다움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이를 여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여주는 듯하다.

요컨대 <가정교사>는 예의범절 교육과 새로운 교육 태도를 보여주며, 작품에 표현된 놀이 모티프는 학습과 더불어 양육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의 이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근면한 어머니>: 근면하고 정숙한 전통적 소녀 교육

<가정교사>로 주목을 받은 샤르댕은 이듬해에 살롱에서 교육과 관련된 3점의 장르화를 선보였다. 그 중 <근면한 어머니>(도 2)는 바느질과 관련된 소녀의 교육 장면을 보여 준다. 엄마의 왼손에는 기구에서 연결된 실뭉치와 수놓은 천이 함께 쥐여 있다. 엄마는 실을 감다가 딸이 놓은 수를 살피며 소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²⁴⁾ 따라서 그림 속 두 여성은 실짓기와 바느질하는 여인의 도상 전통을 연상시킨다. 이 도상들은 루크레티아 이야기와 잠언 31장과 관련되어 정절과 근면 같은 여성의 덕성을 상징했으며,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에서도 많이 발견된다.²⁵⁾ (도 7) 특히 바느질 하는 소녀는 이상적인 가정주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근

23) François Fénelon, 앞의 책, p.58; 존 로크, 앞의 책, pp.141, 209.

24) 당시 이 그림의 관화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었다. “내 딸아 사소한 것들이 너의 주의를 끄는 구나./어제 한 이 잎 장식들을 보아라/나는 네가 수놓은 바느질 한 땀 한 땀에서/너의 마음이 얼마나 이 일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본단다./내 말을 믿으렴. 게으름을 피하고/이 단순한 진실 하나를 기억하렴./근면함과 지혜가 함께하는 것이/아름다움과 부유함보다 훨씬 가치 있단다.” Pierre Rosenberg, 앞의 책, p.244.

25) 서현주,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실 짓는 여인들>과 결혼 도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p.40-44; Wayne Franits, *Paragons of Virtue: Women and Domesticity in 17th Century Dutch Art*(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72, 75. 실짓기와 바느질은 고대부터 문학과 미술에서 여성의 덕성을 상징하며, 이상적인 여성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모티프였다. 로마의 루크레티아는 실짓기를 하며 정절을 지킨 인물이며, 잠언 31장은 실짓는 여인의 근면함을 칭송하고 있다.

면과 정숙의 덕목을 교육 받고 있음을 의미했다.²⁶⁾ (도 8) 실짓기와 바느질일과 관련된 여성을 묘사한 이 그림에 <근면한 어머니>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샤르댕이 이러한 상징의미를 알고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또 이 도상들의 문헌적 기원인 잠언 31장과 루크레티아 이야기는 18세기 프랑스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18세기 여성 교육에서 실짓기와 바느질은 소녀 시절부터 배워야 하는 일로 강조되었으며,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행해졌다.²⁷⁾



도 8. 니콜라스 마스, 〈바느질하는 젊은 여인〉, 패널에 유채, 40×31cm, 1657년, 개인소장

당시 여성 교육의 목적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소녀를 좋은 주부로 양육하는 것이었다. 공적이고 전문적인 사회가 남성의 활동 영역이라면, 여성에게는 가정에서의 가사와 양육의 책임이 주어졌다.²⁸⁾ 이 작품에는 이처럼 바깥세계를 피한 채 가정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시각이 표현되어 있다. 병풍으로 막힌 문은 <가정교사>에서 보았던 바깥을 향해 열려 있는 문과 대조적이다. (도 1, 2) 짙은 녹색의 병풍은 엄마와 소녀를 바깥세상으로부터 차단시키며, 병풍 안쪽의 공간은 모두 여성과 가사에 관련된 모티프들로 채워져 있다. 즉 이 공간에는, 가정에 전념하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성장할 소녀와 아이를 잘 교육하며 가정에만 헌신하는 어머니가 있는 것이다. 또한 병풍은 바

26) Wayne Franits, 앞의 글, pp.21-25. 많은 16-17세기의 문헌들이 부모들에게 그들의 딸에게 바느질을 가르칠 것을 장려하고 있다.

27) Daniel Roche, *The Culture of Clothing: Dress and Fashion in the 'ancien rég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80; Elfrieda T. Dubois, "The Education of Women in Seventeenth-Century France", *French Studies* 32(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12-13.

28) François Fénelon, 앞의 책, pp.2, 4-5; Colin Heywood, 앞의 책, p.163. 이와 같은 남녀의 역할에 대한 차이는 18세기 후반 큰 영향력을 끼친 루소의 교육 소설 『에밀』(1762)에서도 잘 나타난다. 루소는 주인공인 에밀의 교육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달리, 에밀의 아내가 되는 소피의 교육은 바느질과 약간의 드로잉, 그리고 살림을 배우는 것에 그치고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전형적인 부르주아라 할 수 있는 Lamothe가의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을 연구한 Adams역시 18세기 프랑스 부르주아 가정에서의 분명한 성역할을 보여준다. Christine Adams, *A Taste for Comfort and Status: A Bourgeois Family in Eighteenth-Century France*(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0), p.7.



도 9. 에티엔 조라, <절약하는 아내 또는 알뜰한 아내>, 판화, 1734년, 파리, 국립도서관

깔 세상에 대한 보호와 거부의 수단으로서 실짓기 도상과 관련된 여성의 미덕인 정절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바느질이 소녀들의 마음을 건전하지 않은 생각과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본 페넬롱의 지적처럼, 18세기에 실짓기와 바느질 같은 가사에 대한 전념은 모든 유혹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여겨졌다.²⁹⁾

한편 실짓기와 바느질에 전념하는 여성은 사치나 태만으로 가족의 재산을 축내지 않는 알뜰한 여성으로 인식되었다.³⁰⁾ (도 9) 가정의 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은 18세기에 강조된 주부의 덕성 중 하나였는데, 작품 속 여인의 수수한 의상은 이러한 경제적 미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시설이 없던 18세기에 옷의 세탁은 노동을 의미하며 근면의 개념과도 연관된다. 특히 18세기 파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야 얻을 수 있는 깨끗한 의복은 그들의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을 짐작케 해주는 요소였다.³¹⁾ 따라서 <근면한 어머니>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쉽게 드러나는 하얀색 천이 지배적으로 사용된 점은 근면의 미덕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엄마가 앉아 있는 의자는 <가정교사>에서 본 크고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이다. 이는 검소와 절제 등의 미덕을 실천하는 태도와도 잘 어울린다.

요컨대 <근면한 어머니>의 소녀는 숙련된 바느질뿐 아니라 미래에 주부가 될 여성에게 요구되는 근면, 정숙, 검소의 미덕을 배우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는 화면 속 공간과 의상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29) 페넬롱은 실짓기가 소녀시절부터 배워야 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바느질 감으로 그녀를 바쁘게 하라. 그것이 너의 가정에 유용할 것이고, 그녀가 바깥세계의 위험한 관계들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다...덕스러운 여인은 실을 갖고, 가정 일에만 몰두하며, 조용하며, 신앙심 있고, 순종적이다. 그녀는 교회에 맞서 논쟁하지 않는다.” Philip Conisbee, 앞의 책, p.180 에서 재인용.

30) François Fénelon, 앞의 책, pp.215-216; Philip Conisbee, 앞의 책, pp.180-181.

31) 수돗물로 옷을 세탁하는 것은 19세기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옷 세탁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Daniel Roche, 앞의 책, pp.369, 380-395. Roche는 청결하고 단정한 외양의 관리에 반대되는 상황은 사회에서 실패자, 주변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거의 염색을 하지 않으며 내구성이 좋은 린넨은 보편적으로 깨끗함과 더러움의 척도가 되는 아이템이었다

3. <식사기도>: 신앙과 미덕의 교육 장소인 가정

<근면한 어머니>와 함께 전시되어 왕에게 헌정된 <식사기도>(도 3)는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자주 그려지던 도상이다.(도 10) 식전의 감사기도를 묘사한 가장 이른 예는 16세기 독일 판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 게오르그 펄츠(Georg Pencz, c.1500-1550)의 작품에는 오른쪽 끝부분에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³²⁾(도 11) 이 판화에 붙은 명문은 식사 시간 동안 아이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초기부터 식사기도 도상이 신앙과 예절 교육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 준다.³³⁾ 식사 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가정 교육 시간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올바른 기도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를 경건한 성인으로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졌으며, 부모는 어린 아이가 적절한 언어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식사기도를 묘사한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는 아이들을 경건하고 예의바르게 양육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³⁴⁾

샤르댕의 <식사기도> 역시 이러한 전통의 영향 아래에서 제작되었다. 16세기에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예절서와 아동 교육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과 가장 어린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³⁵⁾ 그러나 17세기 그림들이 기도하는 모습, 강아지나 장난감, 성경문구 등의 상징 모티프를 통해 가정적인 미덕과 교육 개념들을 전달하는 것과 달리 샤르댕의 <식사기도>에서는 이렇다 할 상징 모티프가 등장하지 않는다.³⁶⁾(도 3, 11)



도 10. 얀 스테인, <식사기도>, 캔버스에 유채, 44,8 × 37,5cm, 1665년경, 런던, 국립 미술관

32) Wayne Franits, p.142.

33) Wayne Franits, "The Family Saying Grace: A Theme in Dutch Art of The Seventeenth Century," *Simiolus* 16, 1986, pp.36-37. 펄츠의 판화에 붙여진 Hans Sachs의 시는 식사 테이블에서 좋은 행동의 전형을 보여 주는 아이들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34) 위의 글, pp.36, 43; Colin Heywood, 앞의 책, p.92.

35) 필립 아리에스,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pp.567-570.

36) 스테인의 그림이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냄비를 활고 있는 개나 불안하게 어질러져 있는 아이의 놀이 도구들을 잘 교육 받은 아이와



도 11. 게오르크 핑츠, <테이블 훈련>, 판화, 16세기, 베를린, 러시아인 국립박물관 동판화보관소

오히려 샤르댕의 그림은 교육의 순간을 묘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기도를 마치려고 애쓰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서투른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의 시선에서는 아이다움이, 그릇을 손에 쥐고 아이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자세에서는 부드럽고 세심한 교육 태도가 잘 드러난다.

한편 하얀 린넨 식탁보와 은식기, 자기 그릇에 비해 수프뿐인 아이들의 식사는 매우 소박해 보인다. 검소한 식사는 18세기 로크나 롤랭의 교육론에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식사로 권해진 것이다. 로크는 포타지, 묽은 죽, 오트밀 등의 식사가 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언급한 후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세네카 등이 큰 부를 소유했지만 소박한 식사를 하였고, 이러한 절제가 건강과 일상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³⁷⁾

롤랭(Charles Rollin, 1661-1741) 역시 『교육에 관한 논문(*Traité des études*)』에서 자신의 일꾼이나 하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은 자신도 먹지 않을 것을 주장한 카토(Cato)의 예를 제시하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찬양하였다.³⁸⁾ 이들은 아이들이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근면한 어머니>의 엄마가 검소와 절약, 절제의 미덕을 나타내는 것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식사기도>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개인 식기, 수프가 담긴 튜린과 간이화로, 둥근 식탁과 의자, 찬장이 놓여있는 별도의 식사 공간 등은 모두 18세기에 변화된 부르주아적인 생활공간과 새로운 식사 문화를 충실히 드러내고 있다.³⁹⁾ 정리하면 샤르댕의 <식사기도>는 16세기

대비되는 잘못된 교육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샤르댕의 그림에는 특별히 그러한 대비를 보여주는 모티프들이 등장하지 않으며 화면 전체에서 정돈되고 평안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안 스텐의 <식사기도>를 비롯한 식사기도를 주제로 한 그 밖의 17세기 판화와 장르화의 연구에 대해서는 Wayne Franits, 앞의 글, 1986, pp.148-155.

37) 존 로크, 앞의 책, pp.27-29. 디드로와 루소 역시 호화로운 삶과 무절제의 그릇됨을 경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18세기 전반기에 유행한 교육자들이 삶의 방식에 ‘단순성’의 미덕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lla Snoep-Reisma, 앞의 글, pp.182-183.

38) Ella Snoep-Reitsma, 앞의 글, pp.182-183. 카토는 여러 세기 동안 애독 되었고, 18세기까지 재판되었다. 필립 아리에스, 앞의 책, p.605.

39) 18세기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는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인,

이래로 계속된 가정의 식사시간을 통한 신앙과 예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알레고리적인 상징이 아닌 당대의 실제적인 부르주아 가정의 모습을 통해 검소하고 소박한 미덕을 드러내고 있으며, 가정교육의 실제적인 방법과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도 12. 조반니 벨리니, 《화장중인 비너스》, 캔버스에 유채, 62×79 cm, 1515년. 빈, 국립 박물관

4. <아침단장>: 아이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다움

마지막으로 <아침단장>(도 4)을 살펴보겠다. 작품의 원제인 ‘투왈렛 뒤 마탱(toilette du matin)’은 이 그림을 ‘투왈렛’이라 불리는 거울 보는 여성 도상과 연관시켜 준다. 투왈렛 도상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거울 보는 비너스를 통해 여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베네치아 르네상스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실내에서 거울을 보며 단장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허영과 교만, 바니타스 등을 상징한 북유럽 전통이다.⁴⁰⁾(도 12, 13) 샤르댕의 <아침단장>은 화장대와 거울이 있는 가정의 실내에서 단장을 하는 여인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전통과 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구는 대개 소녀에게서 ‘허영(vanity)’의 의미를 읽어냈다.⁴¹⁾ 물론

2006, pp.65, 71, 128-129; Daniel Roche, *A History of Everyday Things: the Birth of Consumption in France, 1600-180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241.

40) 거울 보는 비너스 도상의 이탈리아 기원에 대해서는 Elise Goodman-Soellner, “Poetic Interpretations of the ‘Lady at Her Toilette’, Theme in Sixteenth-Century Painting,”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14, 1983, pp. 426-442. 이 도상의 18세기 프랑스 전통은 Elise Goodman-Soellner, “Boucher’s Madame de Pompadour at Her Toilette,” *Simiolus*. 17, 1987, pp.41-58. 북유럽 회화에서 여성의 악덕과 관련해 거울은 교만(pride), 허영(vanity), 정욕(lust) 등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상징의 이른 예로는 보스의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1480)중 교만을 거울 보는 여인으로 묘사한 것이 있으며, 한스 멤링의 <허영(Vanity)>(1485) 역시 누드의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다.

41) Snoep-Reitsma는 이러한 도상 전통이 18세기 프랑스에도 잘 알려져 있



도 13. 헤라르트 다우, <화장 중인 여성>, 패널에 유채, 75.5×58cm, 1667년, 로테르담, 보이만스 판넌닝언 미술관



도 14. 카스퍼 넷처, <아이의 머리를 빗겨 주는 여인>, 패널에 유채, 44.5×38cm, 1669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구성의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샤르맹의 그림에는 부정적인 모티프들이 등장하지 않으며, 그림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처럼 이 그림을 투왈렛 도상전통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⁴²⁾

그렇다면 <아침단장>에서 실제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정하고 세심한 모습으로 아이의 두건에 핀을 고정시켜주고 있는 엄마와 그러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다. 이전의 그림과 달리 조금 뒤로 물러난 구성과 어떤 사물도 놓여있지 않은 채 약간 어둡게 처리된 뒷벽으로 인

었다는 사실과 이 그림의 판화에 붙은 문구, 그림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아침단장>의 소녀를 허영과 교태를 나타내는 인물로, 어머니는 딸과 대비되며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로 해석했다. Ella Snoep-Reitsma, 앞의 글, p.191.

- 42) “늘 그랬듯이, 그는 부르주아 사회의 일원을 그렸다.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고 믿지 않을 제 3신분의 여성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집안과 행동방식, 일상, 도덕, 아이들의 모습, 가구, 옷장을 볼 것이다.” (Pierre Rosenberg, 앞의 책, p.250)라는 그림에 대한 당대의 기사는 이 그림이 18세기 부르주아 가정의 투왈렛 공간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18세기의 투왈렛 공간에 대해서는 이지은, 앞의 책, pp.46-47, 222, 228.

해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마치 중요한 순간인 듯 집중력 있게 묘사되었다. 이처럼 그림에서 ‘아이를 단장해주는 엄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침 단장>은 아이 머리를 빗겨주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인다. 예를 들면, 넷처(Caspar Netscher, ca.1635-1684)의 <아이를 머리를 빗겨주는 여인(Interior With Mother Combing Hair of Child)>(도 14)은 역시 투왈렛 공간을 배경으로 아이를 단장해주는 엄마를 묘사하고 있으며, 실내 가정의 분위기, 아이와 엄마 사이의 친밀감 등도 샤르댕의 그림과 유사하다.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아이 머리를 빗겨주는 것은 외적인 단장을 넘어 머릿니를 잡는 청결을 의미했으며, 이는 단지 신체적 청결이 아닌 영적, 도덕적 정결을 위한 양육의 의미로 해석된다.⁴³⁾

따라서, <아침단장>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아이의 외양을 꾸미고 단장하는 일이 양육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의복과 관련된 의례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한 라인하레츠(C. Reinhartz)는 16세기의 에라스무스에서 18세기 라살에 이르는 수많은 예법서의 작가들이 모두 청결함과 단정함을 강조하였으며, 의복과 신체의 청결함이 곧 그 사람을 드러내 준다고 보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체의 청결함뿐 아니라 의복의 단정함도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이는 내적인 단정함과 미덕을 나타내는 것이었다.⁴⁴⁾ 이러한 해석은 이 장면이 아침 미사에 가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그림의 왼편 앞쪽 의자 위에는 외출 시 가지고 나갈 토시와 미사전례서가 놓여있다.⁴⁵⁾ 따라서 예배에 데려가기 위해 아이를 단장하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의 외모의 단정함 뿐 아니

43) Wayne Franits, 앞의 글(1986), pp.124-126, 191-193. Franits는 ‘아이 머리를 빗겨주는 도상’과 카츠의 엠블렘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엠블렘의 그림은 여인이 거울을 보며 엉킨 머리를 빗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에 붙은 문구는 이 그림을 매일매일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44) Daniel Roche, 앞의 책(1994), pp.370-373.

45) Philip Conisbee, 앞의 책, p.166; Pierre Rosenberg and Renaud Temperini, 앞의 책, p.88. 17세기 말부터 신자들의 미사 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라틴어판 뒤에 프랑스어 판을 덧붙인 미사 전례서가 출판되었다. 낭트 칙령이 폐지된 1685년에 파리의 대주교는 루이 14세의 명령에 따라 『프랑스어 미사통상문』을 앞에 붙인 『가톨릭 기도서』 10만부를 출판토록 했다. 로제 샤르티에, 이영림 역, 『사생활의 역사 3: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 까지』, 새물결, 2003, pp.108-109.

라 내적인 단정함을 함양하는 매우 이상적인 양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18세기 전반 프랑스 부르주아의 가정적 이상과 아동교육관

1. 부르주아의 가정적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샤르댕의 장르화는 18세기 파리 부르주아 가정을 배경으로 집안에서 벌어지는 자녀교육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들이 그려진 시기는 부르주아 계층이 눈에 띄게 성장하여 시민 계층으로서 정체성과 지위를 확보해 가던 때이다.⁴⁶⁾ 자신의 직업에서 세속적 성공과 안정을 추구해온 부르주아 계층에게 근면하고 검소한 삶은 필연적인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가르침 안에서 자신들의 세속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소박(sober), 검약한(frugal) 삶은 영지를 소유한 한가로운 귀족적 삶과 대조되는 부르주아적인 삶의 모습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의 삶에서 진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부르주아적 미덕이었다.⁴⁷⁾ 부르주아 계층이 크게 성장하고, 사치금지법이 나올 만큼 물질문명이 발달했

46) Elinor G. Barber, *The Bourgeoisie in Eighteenth Century Franc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10, 81. 18세기 파리에서 시민 계급은 경제, 사회, 정치의 각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해 갔다. 18세기의 부르주아는 급격한 부의 증가로 ‘신흥 부자’로 불린 상층 부르주아와 의사, 법인, 지식인, 상인, 산업가, 금융업자, 재능인 등의 직업군으로 구성되는 부르주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해온 ‘전통적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다.

47) 위의 책, pp.77, 83. 한편, Adams의 연구를 통해 라모스가의 여성들 역시 하인들이 있었지만, 바느질과 세탁,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가사에 매우 열심히 전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주고받은 글에서 이들이 샤르댕의 그림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근면, 정숙, 검소의 미덕들을 강조하고 추구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들 같은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지 않는 귀족 여성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나타난다. Christine Adams, 앞의 책, pp.38, 43-47.

던 18세기에 이러한 부르주아적 미덕을 강조한 기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⁴⁸⁾

앞서 살펴보았듯이 샤르댕의 그림에는 동일한 부르주아적 미덕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덕은 그림의 공간과 인물의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네 그림의 가정 공간을 보면, 카드놀이용 탁자가 있는 거실, 벽난로가 있는 내실, 별도의 식사 공간, 투왈렛 공간은 기능에 따라 분화된 부르주아 가정의 실내 모습을 잘 보여준다.⁴⁹⁾ 또한 나무상감 마루와 벽난로 장식, 고급스런 의자와 식기들, 시계 등은 모두 18세기의 새로운 문물로서 이들의 여유 있고 안락한 삶과 지위를 드러내 준다.⁵⁰⁾ 그러나 샤르댕의 작품에 표현된 공간은 같은 시기에 부르주아가정을 묘사한 부셰(François Boucher, 1703-1770)의 <아침(Morning)>이나 <점심식사(Le Dejeuner)>(도 15) 등의 공간이나 사물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소박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샤르댕 그림 속의 물건들은 과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심하고 담담하게 묘사되어 그림 공간 안에 부르주아의 온건하고 절제된 삶의 미덕을 더해준다.

여인들의 의상 역시 그러하다. 앞서 본 샤르댕의 그림 속 여인들



도 15. 프랑수아 부셰, <점심식사>, 캔버스에 유채, 81.5×65.5cm, 1739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

48) Elinor G. Baber, 앞의 책, pp.82-83, 95-96. Baber는 다양한 18세기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 절제되고 근면하며 검약한 삶을 부르주아적인 삶과 동일시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매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다기 보다는 단정하게 꾸민 부르주아 가정에 대해 언급한 18세기의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18세기 부르주아들이 추구한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했다. 크게 성공한 부르주아들뿐만 아니라 중간층의 부르주아들도 사회적인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으로 귀족적 삶의 방식과 상징들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49) Sarah Maza, "The 'Bourgeois' Family Revisited: Sentimentalism and Social Class in Pre-Revolutionary French Culture," *Intimate Encounters: Love and Domesticity in Eighteenth-Century France*(Richard Rand ed., Exh. Ca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40; 로제 샤프티에, 앞의 책, p.26. 이러한 가정생활 공간의 분화는 1730년 이후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50) Daniel Roche, 앞의 책(2000), pp.175, 188-9; Elinor G. Baber, 앞의 책, p.87. Adams가 소개한 라모스가의 편지 곳곳에서 이들이 경제적이고 알뜰한 미덕을 매우 강조하면서도, 당대의 최신 기구나 물품들을 소유하려 했으며, 일상에서의 적절한 안락함과 소비를 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Christine Adams, 앞의 책, pp.38-41.

은 당시 유행하던 파니에나, 로브를 입은 모습이 아니라 카사캥과 앞치마 차림이다. 이러한 복장은 주로 18세기 하인들의 의상이었으며, 주부가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었다.⁵¹⁾ 그림 속 여인들은 가정 일을 하는 주부로서 아이가 단정히 학교에 가도록 준비시키고, 딸이 수놓은 곳을 봐주며, 밥을 차려 먹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며, 아이를 단장시켜 미사에 데려가는 자녀 양육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샤르댕의 엄마들은 당시 만연한 사치 풍조를 따라 자신을 꾸미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가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즉, 부르주아 가정 공간과 여성에게서 모두 근면, 소박, 검약, 절제의 부르주아적 미덕이 나타난다. 이처럼, 귀족 계급과 구별되는 부르주아 계층의 미덕들이 부르주아 가정을 묘사한 샤르댕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그림들이 부르주아의 이상적 정체성과 그들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⁵²⁾

2. 계몽주의적 아동관의 발달과 양육 태도의 변화

샤르댕의 아동 교육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아이들의 묘사와 양육태도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각이다.⁵³⁾ 이를테면 아이들이 매우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는 것과 아이다운 면모가 잘 표현된 점, 아이를 대하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 등이 그러하다. 당시 교육사상의 변화는 이러한 그림을 해석하는 데 실마리를

51) Madeleine Delpierre, 앞의 책, pp.10-12, 105, 114-115; Elinor G. Baber, 앞의 책, p.76. 18세기 이전에는 의상에서 계급적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루이 15세 시기에는 신분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 옷을 입었고, 유행에 따라 다양한 의상을 소비하게 되었다.

52) 부르주아적인 미덕을 강조한 18세기 기록은 당시 부르주아 계층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준다. 사회학자 파슨스는 모든 사회에서 사회계층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은 상이한 사회집단에 의해 얻어지는 상대적인 도덕적 평가라고 하였으며, 사회체계에 내의 특정 위치에 관련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행위유형을 사회적 역할이라고 한다. 홍영희, 「부르조아지에 관한 소고」, 『사회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1979, p.99.

53) Dorothy Johnson, 앞의 글, p.48. 대표적으로 1740년에 루이 15세에게 헌정한 두 그림에 대해 『메르퀴르 드 프랑스』에 실린 글은 샤르댕의 그림의 아이들이 ‘순수함을 지닌 매력적인 나이’ 로, ‘사랑스런 아동기’ 로 묘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Marianne Roland-Michel, 앞의 책, p.45.

제공해 준다.

이전까지 아이는 저능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⁵⁴⁾ 그러나 18세기에는 아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는데, 특히 로크는 “인간은 태어날 때 비어있는 종기와 같다”는 ‘타블라 라사 (Tabula Rasa)’ 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흰 종기와 같은 아이의 마음에 어떤 글씨, 즉 어떤 경험을 채워 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⁵⁵⁾ 이제 아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백지와 같은 존재로 정의되었으며, 더 나아가 어른과 변별된 아이다운 특성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아이를 배려하는 태도가 강조되었고, 엄한 훈련과 질책에 반대되는 부드럽고 인격적인 교육이 장려되었다.⁵⁶⁾

또한 놀이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다. 샤르댕의 그림에 등장하는 팽이와 셔틀콕은 로크와 페넬롱도 권장했던 적절한 놀이의 예이다.⁵⁷⁾ 교육장면의 한 켠에 놓여 있는 놀이 도구는 교육과 함께 장려된 놀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샤르댕의 아동 교육 장르화에는 아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로 인한 양육 태도의 변화라는 당대의 아동 교육관의 새로운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덧붙여 계몽주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넉넉하지만, 검박한 절제의 미덕을 간직한 부르주아 가정인 것이다. 부르주아 가정에서 보이는 아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계몽주의적 교육 태도는 부르주아 계층의 교육적 관심과 성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계몽 엘리트, 계몽 부르주아 계층을 나타내는 표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⁸⁾

54) Dorothy Johnson, 앞의 글, pp.50. 이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신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Colin Heywood, 앞의 책, pp.16-18; 필립 아리에스, pp. 33-57, 89-113. 아리에스는 방대한 시각과 문헌 자료를 토대로 중세 시대에는 어른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아동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15-17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아동기’에 대한 시각이 생겨났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8세기에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발달했음은 분명하다.

55) 임재운, 『교육의 역사와 사상』, 문음사, 2004, p.98.

56) 존 로크, 앞의 책, pp.47-49, 50-59, 108-109, 176-177; François Fénelon, 앞의 책, pp.43-48.

57) 존 로크, 앞의 책, pp.114, 141, 209; François Fénelon, 앞의 책, p.55-58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동교육을 주제로 한 샤르댕의 장르화를 네덜란드 장르화 전통으로만 이해해온 기존의 시각을 넘어 18세기 파리 부르주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18세기 파리 부르주아 가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샤르댕의 아동 교육 장르화는 전통적으로 인정받아온 부르주아 계층의 미덕과 그 시대의 새로운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상적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껏 샤르댕의 그림은 네덜란드 장르화 전통에서의 획일적인 해석 아니면 특유의 화풍에 대한 조형적 비평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듯한 두 개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 해석에서의 모순과 시각적 특징만의 언급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림의 형식적인요소들을 세심히 살펴보면, 18세기 부르주아 시각의 투영이라는 관점을 수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아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관의 부상 등은 보다 심층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샤르댕 회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다고 보았던 이 두 영역이 긴밀히 맞물려 있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해석의 가능성을 넓히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샤르댕의 그림은 전통의 계승과 특유의 조형미, 당대 사회상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어 해석의 여지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18세기 문화사와 미술 제반 상황에 대한 연구가 더욱 축적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58) 18세기 사법이나, 행정, 종교 등의 분야에서 존경 받는 지위에 오른 인물들, 또 유명한 계몽 엘리트들은 대부분 부르주아 출신이었다. 이것은 상업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부르주아들이 물질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쏟았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계몽주의 사상 아래 서양의 근대적인 교육 개혁이 시작된 시기였다. 샤르댕이 그린 <팽이를 가지고 노는 아이>와 <바이올린을 든 청년 또는 샤를-테오도스 고드프로이>의 주인공들 역시 시민 가정에서 태어나 각각 해군 통제관과 투르의 치안관사(capitoul)가 되었다. 몽테뉴, 파스칼, 라신느, 몰리에르, 라 폰텐느, 루소, 디드로, 볼테르 등은 모두 부르주아 출신이었다. 라모스가에 대한 연구 역시 18세기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강조했음을 보여준다. Christine Adams, 앞의 책, pp.21-22.

투고일: 2009.8.23 / 심사완료일: 2009.9.26 / 게재확정일: 2009.10.25

주제어(Keywords)

샤르댕(Jean-Baptiste-Siméon Chardin), 장르화(genre painting), 18세기 프랑스(18th century France), 부르주아 가정(bourgeois family), 아동교육(child education), 부르주아의 미덕(bourgeois virtues),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 백지 상태(tabula rasa)

참고문헌

- 로제 샤르티에, 이영림 역, 『사생활의 역사 3: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 까지』, 새물결, 2003.
- 서현주,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실 잮는 여인들>과 결혼 도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아놀드 하우스, 백낙청, 염무웅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3』, 창작과 비평사, 1999.
- 아리에스, 필립,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 안유리,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Hair Fashion의 경향: 프랑스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앙드레 모로아, 신용석 역, 『프랑스사』, 기린원, 1995.
-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인, 2006.
- 임재윤, 『교육의 역사와 사상』, 문음사, 2004.
- 제임스 레버, 정인희 역, 『서양 패션의 역사』, 시공사, 2005.
- 존 로크, 임채식·강진영 역, 『존 로크의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 서원, 1993.
- 홍영희, 「부르조아지에 관한 소고」, 『사회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1979, pp. 97-115.
- Adams, Christine. *A Taste for Comfort and Status: A Bourgeois Famil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0.
- Bailey, Colin B. ed., *The Age of Watteau, Chardin, and Fragonard: Masterpieces of French Genre Painting*. Exh. Ca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Surveying Genre in Eighteenth-Century French Painting," *The Age of Watteau, Chardin, and Fragonard: Masterpieces of French Genre Painting*. Colin B. Bailey ed., Exh. Ca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 3-39.
- Barber, Elinor G. *The Bourgeoisie in Eighteenth Century Fr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Conisbee, Philip. *Chardin*. Lewisburg: Bucknell University Press, 1986.
- Crow, Thomas. *Painters and Public Life in Eighteenth-Century Par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 Delpierre, Madeleine. *Dress in Fra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7.
- Dubois, Elfrieda T. "The Education of Women in Seventeenth-Century France," *French Studies* 3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1-19.
- Fénelon, François. Instructions for The Education of a Daughter. trans. George Hickes, Bristol: Thoemmes Press, 1994. (reprint of the 1707 Edition) *De l'éducation des filles*. 1687.
- Franits, Wayne. "Review: The Child in Seventeenth-Century Dutch Painting by Mary Frances Durantini," *The Art Bulletin* 67. New York: CAA, 1985, pp.695-700.

- _____. “The Family Saying Grace: A Theme in Dutch Art of The Seventeenth Century,”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16. Utrecht: Stichting voor Nederlandse Kunsthistorische Publicaties, 1986, pp.36–49.
- _____. *Paragons of Virtue: Women and Domesticity in 17th Century Dutch Ar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Gaehtgens, Thomas W. “Genre Painting in Eighteenth–Century Collections,” *The Age of Watteau, Chardin, and Fragonard: Masterpieces of French Genre Painting*. Colin B. Bailey ed., Exh. Ca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79–89.
- Goodman–Soellner, Elise. “Poetic Interpretations of the ‘Lady at Her Toilette,’ Theme in Sixteenth–Century Painting,”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14. Kirksville: Truman State University Press, 1983, pp.426–442.
- _____. “Boucher's Madame de Pompadour at Her Toilette,” *Simiolus: Netherlands Quarterly for the History of Art* 17. Utrecht: Stichting voor Nederlandse Kunsthistorische Publicaties, 1987, pp.41–58.
- Heywood, Colin, *A History of Childhood: Children and Childhood in the West from Medieval to Modern Times*. Cambridge: Polity Press, 2001.
- Johnson, Dorothy. “Picturing Pedagogy: Education and the Child in the Paintings of Chardin,” *Eighteenth–century studies* 2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0, pp.47–68.
- Maza, Sarah. “The ‘Bourgeois’ Family Revisited: Sentimentalism and Social Class in Pre–Revolutionary French Culture,” *Intimate Encounters: Love and Domesticit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Richard Rand ed., Exh. Ca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39–47.
- Roche, Daniel. *The Culture of Clothing: Dress and Fashion in the ‘ancien rég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A History of Everyday Things: the Birth of Consumption in France, 1600–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Roland–Michel, Marianne. *Chardin*. trans. Eithne McCarthy, New York: Harry N. Abrams, 1996.
- Rosenberg, Pierre. ed., *Chardin*. Exh. Cat.,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00.
- Rosenberg, Pierre and Renaud, Temperini, *Chardin*. New York: Prestel, 1999.
- Scott, Katie. “Child's Play,” *The Age of Watteau, Chardin, and Fragonard: Masterpieces of French Genre Painting*. Colin B. Bailey ed., Exh. Ca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91–105.
- Snoep–Reitsma, Ella. “Chardin and the Bourgeois Ideals of his Time,”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24. Bussum: Fibula Van Dishoeck, pp.147–243.
- Toman, Rolf. ed., *Baroque and Rococo*. Berlin: Feierabend, 2003.

Abstract

Chardin's Genre Paintings of Child Education – The Enlightenment Views on Children of the French Bourgeois Class in the 18th Century

Ko, Yu-Kyoung(M.A., Hongi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four genre paintings on the subject of child education by Jean-Baptiste-Siméon Chardin(1699–1779). *The Governess*, *The Diligent Mother*, *Saying Grace*, and *The Morning Toilette* garnered critical attention after they were exhibited in the Salon from 1739 to 1741. After the exhibition, the paintings were made into prints and frequently sold to members of the bourgeois class in Paris.

The iconographical details of Chardin's genre paintings have, thus far, been compared to Dutch genre pictures of the seventeenth century. Further, most studies conducted on Chardin's paintings focus on formal analysis rather than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Through attempting social-contextual readings of Chardin's educational ser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ignificance of Chardin's painting series of child education lies in his representation of the ideal French bourgeois family and the standar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eighteenth-century French Enlightenment period.

In each of the four child education paintings, Chardin depicted a mother with children in a domestic space. Even though this theme derives from traditional Dutch genre paintings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visual motifs, the pictorial atmosphere and the painting techniques of Chardin all project the social culture of eighteenth century France. Each painting in the child education series exemplifies respectively the attire of a French gentlemen, the social view on womanhood and the education of girls, newly established table manners, and the dressing up culture in a 'toilette' in eighteenth century France.

Distinct from other educational scenes in previous genre paintings, Chardin accentuated the naive and innocent characteristics of a child and exemplified the mother's warmth toward that child in her tender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ing. These kinds of expressions illustrate the newly structured standard of education in the French Enlightenment period. Whereas medieval people viewed children as

immature and useless, people in the eighteenth century began to recognize children for their more positive features. They compared children to a blank piece of paper (*tabula rasa*), which signified children's innocence, and suggested that children possess neither good nor bad virtues. This positive perspective on children slowly transformed the pedagogical methods. Teaching manuals instructed governesses and mothers to respect each child's personality rather than be strict and harsh to them. Children were also allotted more playtimes, which explains the display of various toys in the backgrounds of Chardin's series of four paintings.

Concurrently, the interior, where this exemplary education was executed, alludes to the virtue of the bourgeois's moderate and thrifty daily life in eighteenth century France. While other contemporary painters preferred to depict the extravagant living space of a French bourgeoisie, Chardin portrayed a rather modest and cozy home interior. In contrast to the highly decorated living space of aristocrats, he presented the realistic, humble domestic space of a bourgeois, filled with modern household objects. In addition, the mother is exceptionally clad in working clothes instead of fashionable dresses of the moment. Fit to take care of household affairs and children, the mother represents the ideal virtues of a bourgeois fami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our genre paintings of child education by Chardin articulate the new standards of juvenile education in eighteenth century France as well as the highly recognized social virtues between French bourgeois families. Thus, Chardin's series of child education would have functioned as a demonstration of the ideal living standards of the bourgeois class and their emphasi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French Enlightenment period.